

## 글로벌 네트워크와 신자유주의: 인식공동체 개념의 재평가와 사례연구에의 활용

김성현\*

국제관계에서 전문가 그룹들은 과학적 권위나 정치적,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인 표준의 형성에 기여한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러한 그룹을 지칭하기 위해 인식공동체개념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인식공동체 개념을 활용한 연구들의 성과는 기대와는 달리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인식공동체 개념의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또한 새로운 시각에 입각해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 네트워크들이 국제적인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사례로서 분석한다. 전체주의의 등장과 세계대전, 그리고 케인즈 경제학의 영향력 등에 의해 위기에 직면한 자유주의자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모임과 조직을 결성하고 체계적으로 자유주의를 혁신했다. 이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은 신자유주의 이론들의 차이점, 각 분파를 대표하는 인물들과 권력경쟁, 신자유주의가 순환하는 국제적인 경로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인식공동체, 신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몽펠랭협회, 월터 리프만 회의

\* 숭실대학교 강사

## I. 문제의 제기

근대이후 사회를 지배하는 규범은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합리화 되었다. 모든 사회영역과 마찬가지로 국제정치경제 영역에서도 규범들에 과학적인 정당성을 생산하고 부여하는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국제적인 영역에서 이론과 이념을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들은 과학적 권위나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의 이론들을 확산시키고 국제적인 표준의 형성에 기여한다(Dezalay et Garth 1997).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러한 그룹을 지칭하기 위해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라는 개념을 활용해 왔다. 1990년대 일군의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이 개념은 기존 연구들이 간과해 온 전문가 그룹의 정치경제 정책에 대한 영향을 미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인식공동체 개념을 활용한 연구들의 성과는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제 1장에서는 인식공동체 개념의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 개념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인식공동체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의 부재가 국제 “정치” 연구에 대한 기여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될 것이다. 이 개념은 특히 외교정책을 비롯한 각종 공공정책에 대한 특정 전문가 그룹의 영향을 설명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세 가지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인식공동체를 단일한 집단으로 설정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로서 한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인식공동체에 속한 전문가들이 통일된 전문성을

보유한 집단이라고 가정하는데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전문성(expertise)은 학문적 활동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권위를 인정받음으로써 획득된다. 인식공동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인식공동체 내부와 외부의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에 관여하게 된다. 인식공동체 분석은 이 점을 간과하기 때문에 정치현상의 분석으로서 효용성이 제한된다.

셋째, 이상의 특징 때문에 인식공동체 내부에 존재하게 되는 권력의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인식공동체”, “주창네트워크(advocacy network)”, 더 나아가 “시민사회(civil society)” 등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개념들은 그것을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수평적”관계를 가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개념들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공동체, 결사체,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구성원 간에는 비공식적, 비제도화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노드(nodes)간의 접속이 자유로운 유연성을 강조한다. 또한 탈중심성을 강조하며 위계적인 구조를 가진 기존의 조직들과 명확한 차이를 설정한다. 그러나 인식공동체에는 다른 행위자들 보다 더 많은 권위와 정당성을 인정받는 전문가들과, 운동조직들이 엄연히 존재하며, 정치적 경제적 후원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개인과 집단들의 영향력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월등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인식공동체 개념은 왜 어떤 인식공동체의 영향력이 다른 인식공동체의 영향력 보다 더 월등한가 설명할 수 있으며, 권력현상의 탐구에 더 부합하는 분석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입각해 이 글의 제 2부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가 국제적인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사례로서 분석한다. 1938년 파리에서 열린 월터 리프만 컨퍼런스(Walter Lippman Conference)와 그 결과로 1947년 스위스에서 결성된 몽펠르랭 협회(Mont-Pelerin Association)는 신자유주의 전문가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주의의 등장과 세계대전, 그리고 케인즈 경제학의 영향력 등에 의해 위기에 직면한 자유주의자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모임을 결성하고 체계적으로 자유주의를 혁신했다. 자유주의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고전적 자유방임주의를 수정한 새로운 자유주의에 합의하게 된다. 이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은 신자유주의 이론들의 차이점, 각 분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권력 경쟁,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순환하는 국제적인 경로까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 II. 인식공동체 개념의 재검토

정책에 관련된 권위와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인식공동체 개념은 “Knowledge, Power,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이라는 부제를 단 1992년 <International Organization>의 특집호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이 개념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제관계 연구자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지만 경험적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인식공동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연과학자들의 그룹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너무 협소한 경험적 연구를 산출하는 면이 있었고, 인식공동체의 영향에 대해 새로운 점을 드러내기 위한 광범위한 비교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전문가그룹과 정책결정 간 단편적인 인과관계를 검토하는데 그친 면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인식공동체 개념을 재검토하고, 초창기에 제시된 연구프로그램의 의도를 명확

하게 밝히며, 보다 건설적인 연구들이 진전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자 한다.

## 1. 인식공동체 개념의 출현과 발전

플렉(Fleck, 1935)이 <*Genesis and Development of a Scientific Fact*>에서 발전시킨 “집단적 사고(collective thought)”라는 개념은 푸코(Michel Foucault)가 사용한 에피스테메(episteme) 개념과 더불어 인식공동체 개념을 탄생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sup>1)</sup> 그 후 쿤(Kuhn 1962), 홀츠너(Holzner 1972), 하스(Haas et al. 1977)는 이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62년 쿤은 공유된 패러다임, 즉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믿음들과 방법론적 표준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특수한 전문분야의 사람들의 그룹으로 정의되는 “과학 공동체” 개념을 제시했다. 사회학에서 홀츠너는 1968년 인식공동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하스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자 그룹을 지칭하기 위해 이 개념을 국제관계연구에 도입했다. 그 후 이 개념은 하스(Haas 1990)의 공공정책 연구에 적용되었고, 러기(Ruggie 1975)와 아들러(Adler 1987)의 연구로 이어졌다.

1975년 러기는 푸코의 에피스테메 개념에 의지하면서 쿤의 과학 공동체 개념의 범위를 확대했는데 그는 인식공동체들이 “관료적 지위, 기술적 훈련, 과학적 외양에서의 유사성, 그리고 공유된 전문분야별

<sup>1)</sup> 에피스테메는 원래 의견과(doxa) 대비되는 합리적 추론에 의한 지식을 의미하지만 푸코는 어떤 특정한 시대의 문화를 규정하는 구조적인 규칙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Foucault 1973).

패러다임”으로부터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uggie 1975, 570). 그에 따르면 인식공동체는 의도, 기대, 상징, 행위의 규칙, 그리고 이해를 위한 레퍼런스(reference) 등을 공유하는 전문가들의 집단이다. 인식공동체를 함께 묶어주는 에피스테메는 공동체의 구성원과 국제사회를 위해 적절한 사회적 현실의 구성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Ruggie 1975, 570).

하스는 아들러와 함께 1992년 <International Organization>의 특집호에서 인식공동체를 “특수한 분야에서 인정받은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그 분야나 이슈 분야에서 정책과 관련된 지식에 대해 권위적인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로 정의했다(Haas 1992, 3). 이 정의에 따르면 인식공동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공유하는 인과적인 믿음과 정책목표들을 설득하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인식공동체의 정책 목표들은 무엇보다 그들의 전문지식으로부터 나오며, 인식공동체가 의존하는 전문지식이야말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다양한 다른 초국적 집단들(예를 들어 주창 네트워크, 로비그룹, 기타 이익집단 등)과 인식공동체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식공동체는 정책결정자들에게 그들의 특수한 전문 영역에서 공동체 멤버들이 공유하는 목표들을 설득함으로써 인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1992년 <International Organization> 특집호에 기고한 또 다른 연구자들은 인식공동체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했다. 드레이크와 니콜라이디스(Drake and Nicolaidis 1992, 37-100)는 전문가들의 인식공동체가 각국 정부들을 설득하여 서비스 분야의 무역을 GATT의 무역자유화 정책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보호주의에 대한 각국 대표들의 끈질긴 선호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에게 이 분야의 무역 자유화가 국경을 초월한 공익에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각국 정부는 처음에는 무역 자유화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를 위험한 제안으로 간주했지만 결국 이 정책을 채택했다. 일단 정부들이 납득을 한 후에는 인식공동체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아이켄베리(Ikenberry 1992, 289-321)는 대부분 케인즈 경제학의 추종자였던 영국과 미국 경제학계의 영향력 있는 인식공동체가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의 협상과정 동안 정부를 설득하여 그들의 정책 목표들을 관철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들러(Adler 1992, 101-145)는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인식공동체가 국제 공동체로 하여금 1972년 이후 전략미사일 제한협정(ABS) 레짐(regime)을 마련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 인식공동체는 초국가적 인식공동체라기 보다는 국내의 공동체였지만, 이 공동체 역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현실의 국제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외의 사례 연구들은 포경업, 환경, 중앙은행장들의 인식공동체를 다룬 것들이었다(Peterson 1992, 147-186; Haas, 1992, 187-224; Kapstein 1992, 265-287). 이처럼 초창기의 연구들은 세밀한 경험적인 연구들을 수행함으로써 인식공동체 개념의 유용성을 납득시키고 미래의 연구로 나아갈 수 있는 건설적 연구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인식공동체에 대한 이와 같은 초창기 관심은 국민국가 중심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였던 기존의 국제정치연구를 넘어서 초국가적 상호작용과 네트워크들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연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후 연구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인식공동체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집중했다.<sup>2)</sup> 이러한 연구는 인식공동체 외부에 존재하는 영리조직들이나 공

공기관들이 인식공동체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각각의 인식공동체가 표방하는 특정한 전문성의 권위가 인정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주로 물질적 권력자원을 보유하고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경쟁을 다루는데 집중된 기존의 국제정치학과 구분되는 새로운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특히 연성권력(soft power)의 한 구성요소로서 전문성이 국제관계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인식공동체에 입각한 연구들은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개념을 활용한 후속 연구들이 많지 않았고, 인식공동체 개념을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환경전문가, 경제학자, 기타 과학자들에 대한 단편적 사례들에, 그것도 매우 협소한 의미로써 적용하고자 했다. 이하에서는 인식공동체 개념이 국제관계 연구에서 보다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유용성과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 2. 인식공동체 개념에 대한 비판

인식공동체 개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제시되는 몇 가지

---

2) 예를 들어 베르딩(Verdun 1999, 308-328)은 들로르 위원회로 알려진 통화전문가 그룹이 유럽 통화연합(European Monetary Union)의 설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베르딩은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이 정치적이거나 보다는 기술적이고 전문성에 입각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지토(Zito 2001, 585-603)는 유럽연합의 산성비 정책에 영향을 미친 환경 인식공동체의 역할을 탐구했다.

비판의 범주가 있다. 먼저 정책에 대한 인식공동체의 영향력과 관련된 논의에서, 토크(Toke 1999, 97-102)와 크랩스(Krebs 2001, 225-226)는 인식공동체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인식공동체가 아무런 문제없이 정책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빈번하게 가정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인식공동체보다 더 설득력 있는 정책 영향력을 위해 경쟁하는 다른 행위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결국 권력의 문제와 직결된다. 상호 경쟁하는 다양한 집단 중 특정 집단이 정책에 대해 행사하는 더 큰 영향력은 해당 집단이 공유하는 전문성으로부터만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식공동체가 자신의 네트워크 외부에 존재하는 권력집단과 맺고 있는 관계들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연구의 외연 확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다.

두 번째 비판은 정부보다 인식공동체가 복잡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언제나 정부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토크는 각국 정부들이 정책과 관련해 불확실성의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더 나은 지식과 정보를 보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Toke 1999, 97-102). 그렇다면 인식공동체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식공동체를 활용하는 정 반대의 상황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비판의 영역은 인식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동기와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왜 특정한 인식공동체에 참여하는가? 보다 나은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작위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해 크랩스는 인식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들 개인적이거나 전문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식공동체가 전문성보다는 단지 그들 자신만의 문화나 전략적인 이

익을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질문한다(Krebs 2001, 225-226).

네 번째 비판은 인식공동체들이 정책연합의 일부분일 경우에만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이 있다. 세베니우스(Sebenius 1992, 323-365)와 던롭(Dunlop 2000, 137-144)은 인식공동체들이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식공동체는 권위있는 전문적 주장을 통해 설득을 하기 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행위자들과 똑같이 정치적인 흥정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즉, 공동체 구성원들은 정부 지원을 얻기 위해, 혹은 공공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해 개인이나 조직의 공신력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 혹은 스스로 정치 권력자가 되기 위해 권력기관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던롭은 1992년 하스가 제시했던 분석틀은 인식공동체의 영향력을 가늠하기 위한 기준들, 즉 원칙있는 믿음의 공유, 인과적인 믿음의 공유, 유효성의 개념들의 공유, 혹은 공동의 정책기획 중 어느 것이 인식공동체의 선호를 설명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인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Dunlop 2000, 137-144).

이처럼 인식공동체 개념과 사례 연구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 비판들로부터 인식공동체 개념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건설적인 제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해 보면 이상의 비판들은 인식공동체의 미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인식공동체에 대한 국내 정치의 영향(Krebs 2001, 225-226). 둘째, 인식공동체들 사이의 경쟁이나 인식공동체와 다른 집단들과의 경쟁(Dunlop 2000, 137-144). 셋째, 인식공동체가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 넷째, 각각의 인식공동체가 보유한 다양한 권력의 차이. 끝으로 과학적 지식과 정치적 선호 간의 관계 등(Krebs 2001, 225-226)이 고려될 때, 인식공동체 연구는 특수한 지식의 인과적 영향력에 한정된 협소함을 넘어 정책 및 정치적 과정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인식공동체 개념이 국제관계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공헌은 이 개념이 기존 국제관계 연구들이 세밀하게 서술하지 못했거나 관심이 없었던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매우 세밀하게 서술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이었다. 국제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영역에서도 정책의 형성이나 규범의 정립에 대한 전문가들의 영향이 필수적인 현대 사회에서 인식공동체 개념은 국제관계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에 기여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개념의 문제들은 전술한 개선방안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국가의 팽창과 전체주의의 발흥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그들의 세계관과 경제적 지식을 어떻게 혁신하는지 살펴본다. 본 사례연구의 관심은 특정한 인식공동체가 특수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해 내려는 기존 인식공동체의 관심보다는 인식공동체의 사회적 구성 과정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한다. 상이한 사회적, 개인적 배경과 권력집단과의 관계, 자유주의에 대한 각양각색의 시각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할 것이다. 자유주의가 혁신되는 과정에는 상이한 전문가들과 정치세력의 노력뿐만 아니라 경쟁이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구성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각국의 특수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별도의 심층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하의 내용에서는 서술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 Ⅲ.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구성

1947년 하이예크(Friedrich Hayek)와 뢰프케(Wilhelm Röpke)가 주도하여 설립한 몽펠르랭 협회(Société du Mont-Pèlerin)는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운동의 결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이 협회는 설립 이후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아이디어를 순환시킨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해 왔다. 위기에 직면한 자유주의를 구원하고 혁신하기 위해 설립된 이 협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경제전문가와 경영자들과 정치인들이 만나는 장을 제공하고, 프로파간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원칙들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들의 성공은 물론 아이디어의 힘에만 의존했던 것은 아니었다.

#### 1.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노드들(nodes)과 사회자본의 축적

몽펠르랭협회는 1930년대 말부터 유럽 각지에서 확산된 계획경제, 사회주의, 파시즘 등 집산주의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고전적 자유방임주의를 혁신하기 위해 설립된 자유주의자들의 인터내셔널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직은 시민사회에 머무르면서 국가가 시장의 논리에 따르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시장에 대한 국가의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개입의 필요성도 인정하는 신자유주의 네트워크의 허브였다.

신자유주의는 1930년대 세계 정치경제의 위기와 그것이 산출한 정

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기존 질서를 붕괴를 배경으로 출현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 경제가 파산에 직면한 것으로 보였던 당시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혁신을 요청하는 다양한 신사고, 즉 신자본주의, 신사회주의, 신조합주의 같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들과 함께 등장한 이념이자 이론이었다.

1920년대 말에 출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신자유주의는 1938년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월터 리프만 회의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의되었다. 이 국제회의는 <New York Herald Tribune>의 논설위원 월터 리프만의 대표작 <Good Society(La Cité libre)>가 프랑스에서 출판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 여러 나라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경영자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참여했다.

1889년 맨하탄에서 출생한 월터 리프만은 독일에서 이민 온 부유한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금융투자가의 아들이었던 그는 1910년 하바드에서 철학 학위를 받았다. 청소년기부터 저널리즘과 정치에 이끌렸던 리프만은 (하바드에서 그는 학생 사회주의 클럽의 활동적 멤버였다) 영향력있는 저널리스트이자 에세이스트가 되었다. 사회주의 계열의 신문이었던 <Boston Common>에서 언론인 경력을 시작한 그는 그 후 정치노선이 다른 자유주의 성향의 <New Republic Magazine>의 설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는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자문으로서 14개조의 작성에 관여했으며, 국무부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미국대표로서 참가했다. 베르사유 강화조약에 대한 견해 차이로 윌슨 대통령과 거리를 두게 된 그는 1920년 <New York World>를 거쳐 1931년에는 *New York Herald Tribune*에 재입사했는데, 이곳에서 약 30년 동안 <Today and Tomorrow>라는 사설을 담당했다. 리프만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사이를 오간 초당파적 인물이었는데(6회의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 7

회의 민주당 후보), 갈수록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동했다. 21권의 책의 저자였던 그는 두 번의 풀리처상과 19개 대학의 명예 학위증이 입증해 주듯 20세기에 걸쳐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고 영향력이 큰 저널리스트 중 한명이었다.

리프만이 그의 저서 <*The Good Society*>에서 “자유주의 아젠다(liberal agenda)”라 칭한 원칙들은 당시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서 가격 메커니즘은 옹호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의 규칙과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법률적인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시장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구성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즉, 역사와 정치로부터 독립될 수 없다). 넷째, 법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여전히 중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유주의 체제가 최대의 효용이외에 다른 사회적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마지막 항목과 관련해 리프만은 국민소득의 일부가 특정 그룹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국가가 국민소득의 일부를 징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Denord 2001).

이처럼 월터 리프만의 신자유주의는 전체주의와 국가개입주의에 의해 파괴된 자유주의 질서의 복구를 목표로 했지만,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사조였다. 리프만이 제시한 새로운 자유주의의 원칙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국가가 경제적인 영역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법률적인 보장을 마련해야 하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제한적인 개입은 인정하는 새로운 자유주의 질서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Denord 2002, 2).

이 회의가 파리에서 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이 필

요하다. 당시 프랑스는 자유주의 혁신을 위한 캠페인이 격렬하게 벌어지던 지식의 장의 전쟁터였으며, 좌우 정치세력으로부터 다양한 혁신안이 제기되었다. 특히 루지에르(Louis Rougier)를 비롯한 몇몇 지식인은 이 전쟁에서 지적 자본뿐만 아니라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브로커 역할을 담당한 중요한 노드(nodes)이기도 했다.

월터 리프만 회의를 조직하고 자유주의 개혁을 위한 국제연구센터(Centre International d'Etudes pour la Renovation de Liberalisme, 이하 CIERL)의 설립에 기여한 루지에르는 “자유주의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프랑스 국내 세력의 뒷받침을 받았다. 경제학자도 아니었고, 기업가도 아니었으며, 이공계 그랑제콜 출신의 엘리트 기술자도 아니었던 루지에르는 경제사상과 실천을 주도해 온 프랑스의 전통 엘리트와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다. 브장송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그는 대중들에게 경제적인 전문성을 주창하기 보다는 “투명한 정신”, 즉 추상적인 규범을 설파하고자 했다(Rougier 1938, 34). 루지에르는 조합주의(corporatism)와 계획경제, 그리고 과학적으로 정초되지 않은 기타 “신비로운” 경제 논리를 맹렬히 공격하고 자유주의 독트린의 개혁을 주창했다. 그는 월터 리프만처럼 고전적인 자유주의를 넘어서 자유경쟁의 가능성을 항상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적 질서를 강조했는데, 이를 “건설적 자유주의”로 명명했다.

위기의 상황에서 루지에르가 처방한 건설적 자유주의는 아이디어의 절충을 통해 그 당시까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사상적 수렴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Boltanski 1982, 90). 루지에르가 수행한 이데올로기의 조합 공식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우선 이데올로기적으로 확고한 자유주의자들과 새로운 자유주의자들을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좌파(공산주의자, 계획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와 프랑스 인민전

선(Front populaire)에 환멸을 느낀 좌파 정치세력을 구분했다. 이렇게 구분된 정치세력을 통합함과 동시에, 경제학과 법학적인 전문 담론을 중심으로 1930년대 동안 프랑스의 경제적 담론을 주도해 왔던 두 그룹, 즉 전문 엔지니어 경영자들과 대학 교수들 간의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그가 추구한 목표였다(Denord 2002, 4). 그가 주창한 신자유주의 혹은 건설적 자유주의는 시장이 분화된 노동의 종합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경제학적인 주장과, 자유주의적 시장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적인 전문성과 법률적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들을 연결하는 원칙이 될 수 있었다.

루지에르가 사무총장을 맡았던 CIERL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단기간 동안(1939-1940) 경제적인 장(champ)의 지배적인 분파들<sup>3)</sup>과 과학의 장<sup>4)</sup>, 국가권력의 장<sup>5)</sup>, 그리고 노동자총연맹(CGT)의 비공산주의 분파로 대표되는 노동운동계의 인물<sup>6)</sup>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60여명의 멤버들을 보유할 수 있었다(Denord 2002, 4). 위기에 직면하여 사회 각 분파의 타협이 요청되던 상황에서 CIERL은 절충적인 정치경제 이데올로기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지배계급분파들의 적대감을 중재하고 완화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 조직은 또한 실용주의와 현실주의를 표방하면서 비판적 행위자들도 신자유주의 동맹에 참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신자유주의의 성공은 국내의 정치경제 상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인민전선의 해체와 레옹 블룸(Leon Blum) 정부의 친노동정책(특히 40시간 근로법과 소득증대 정책)을 비판하며 집권한 달라디에

3) 알스롭 사장 뒤퇴프(Auguste Detœuf), 50여개 기업의 총수였던 메르시에르(Ernest Mercier) 등.

4) 바르텔레미(Joseph Barthélémy), 리스트(Charles Rist), 지그프리트(André Siegfried) 등.

5) 국제결제은행장인 오브앵(Roger Auboin), 일반기금운동의 지도자였던 루에프(Jacques Rueff) 등.

6) 벨랭(René Belin), 라코스트(Robert Lacoste), 피노(Christian Pineau), 발롱(Louis Vallon) 등.

르(Daladier) 정부 덕분에 자유주의로의 복귀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러나 이처럼 자유주의의 부활에 유리한 정치경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할지라도, 루지에르가 1920년대와 1930년대 동안 꾸준히 축적한 사회자본의 동원이 없었다면 자유주의의 혁신은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루지에르는 대학교수였지만 재계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1920년대에 재계를 대표하던 <경제정보 및 연구 협회보(Bulletin de la Société d'études et d'informations économiques)>에 관여했고 <익스 크리즈(X-Crise)>나 <누보 까이에르(Nouveaux Cahiers)> 같은 기술 그룹과도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기관들은 양차대전 사이에 우파진영에서 정치경제 사상의 혁신을 주도한 서클의 대표자였다(Dard et Coutrot 1999). 루지에르는 또한 1932년에 드몽지(Anatole de Monzie) 장관에 의해 소련에 파견되는 등 외교업무를 수행하기도 했고, 민간영역에서 국제적인 임무를 수행한 바도 있었다. 록펠러 재단은 그에게 1934년에 중유럽의 지식인들에 대한 연구를 위탁한 바 있었다. 1935년과 1937년에 그는 신자유주의 지식의 형성에서 중요한 장소였던 제네바 국제고등연구소(Institut des Universitaire des Hautes Etudes Internationales, 이하 IUHEI)에서 강의를 맡기도 했다.

이처럼 당시의 지배적인 정치경제 문제들을 다루던 주요 장소들과 업무에 투자함으로써 루지에르는 프랑스 국내의 엘리트 세계와, 프랑스와 해외 엘리트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즉 여러 장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프랑스 국내와 해외의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중개자(passeur)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또한 메디시스(Medicis) 출판사의 설립 덕분에 해외로부터 신자유주의 사상의 수입을 독점할 수 있었는데, 이 출판사는 1937년부터 1940년 사이에 하이예크, 리프만, 로빈스(Lionel Robbins), 미제스

(Ludwig von Mises) 등, 약 40여 편의 신자유주의 저자들의 책을 프랑스에 유통시켰다. 루지에르는 어떤 저자들의 어떤 책을 출판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인물들의 추천사와 서평을 출판할 것인지 선별하면서 출판계에의 최종심급에 위치했다. 이를 통해 그는 외국저자들의 명성과 프랑스의 저명한 이름들을 결합시키고, 이 저명한 이름들을 통해 상징적인 자본을 획득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그는 신자유주의 확산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중개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 2. 신자유주의 국제 네트워크의 제도화: 이질적인 분파의 통합과 단일 조직의 형성

신자유주의의 주창자들이 물론 프랑스에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리프만 회의의 참석자들 중 절반은 외국인들이었고, CIERL의 지도부는 멤버들의 국적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CIERL의 지도부를 구성한 여러 그룹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우선 프라이부르크 학파(Freiburg School)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독일의 참가자는 오이켄(Walter Eucken)과 뢰프케(Wilhelm Röpke)였는데,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적 시장경제” 혹은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을 이끈 인물이었다. 하이예크와 로빈스가 강의를 했던 런던 정경대학(LSE)에 토대를 둔 영국학파는 1930년대 동안 케인지언과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격렬한 대립을 겪고 있었다(Ebenstein 2001, 49-59). 하이예크의 스승인 미제스가 주도한 오스트리아 학파는 CIERL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모르겐스테른(Oscar Morgenstern), 슈츠(Alfred Schütz) 등이 참가한 민간

세미나를 주도했다. 끝으로 나이트(Frank Knight)가 이끌었던 미국 시카고학파는 훗날 수많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배출함으로써 현대의 신자유주의를 대표하게 될 가장 유명한 학파였다, 그러나 사실 이 경제전문가들의 국적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다. 오스트리아 학파와 독일학파의 대다수의 대표자들은 1930년대 동안 망명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체주의 체제를 피하기 위해 록펠러재단과 같은 공익재단들이 대학들에 제공한 보조의 혜택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지배계급출신으로서 해외체류와 해외연구를 했건, 혹은 공적이거나 사적인 국제업무 등에 관여했건, 혹은 프랑코 독재체제, 파시즘과 나치즘의 억압으로 망명을 해야했건 리프만 회의의 참석자들은 국제적인 배경을 공유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아이디어의 순환은 망명자들의 공동체와 이 공동체들에 접속된 다양한 국제적 연대에 큰 빛을 지고 있었다. 특히 다른 지식인 분파들과 비교해 더 많은 국제적인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던 유럽의 대학 교수들이 그러했다(Charle 1994, 42-62). 리프만 회의의 참석자들은 오랫동안 직접적인 교류나 서신 교환을 통해 관계를 유지했고, 불행한 멤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는 온갖 유형의 전체주의에 대한 거부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적인 통합을 촉진했고, 자유주의적인 정치 투쟁과 연방제적 유럽통합의 이상에 양분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제적 네트워크로부터 이질적인 요소들의 통합이 가능해졌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집단적 사회자본의 구성이 바로 그것이었는데(Bourdieu 1980, 3), 이러한 사회자본의 구성은 국가 간 전쟁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리프만 회의는 뮌헨협정 몇 주 전에 진행되었다) 초국가적 그룹의 지속을 가능하게 했다. 이 네트

워크의 노드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참여한 멤버들뿐만 아니라 멤버가 아니더라도 신념을 공유한 인물들에게 국제적인 정당성과 신뢰성을 부여하면서 그들을 국내의 대표자로 만들어주었다. 특히 프랑스의 루지에르, 영국의 하이예크, 스위스의 래퍼드(William Rappard) 같은 인물이 그런 경우였다.

집단적인 사회자본의 재생산과 그것의 증식은 국제적인 기관들에 의해 보장되었는데, 이 기관들은 신자유주의를 확산시키는 작업으로 전문화되지 않았지만 루지에르가 리프만 회의에서 천명했던 “미리 구축되지 않은 하모니, 조화되지 않은 조화”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즉, 이 기관들은 특정 이념이나 정책을 강하게 주창하지 않음으로써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모습을 유지한 채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미 1930년대부터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동질적인 행위자들을 선별할 수 있게 해준 조직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점에서는 특히 신자유주의의 제창자들이 주도한 세 개의 기관이 중요했는데 대학에 소속된 경제학자들의 국제조직인 불어권 경제학자회의(*congrès des économistes de langue française*), 경영자들의 압력단체인 국제상공회의소(*chambre des commerces internationaux*), 그리고 망명 지식인들의 피난처였던 제네바 국제고등연구소(*Institut universitaire des hautes études*)가 그 사례였다.

불어권경제학자 회의는 초국가적인 학술 기관으로서 경제학 이론과 연구방법을 통일하고 학자들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상설기관이었다. 1926년에 설립된 이 국제포럼은 경제학계에 전문적 권위를 행사하는 특수한 심급으로서, 매년 프랑스와 해외의 시사문제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 소속된 경제학자들은 또한 전문 학술저널들<sup>7)</sup>과 보다 이념적인 성격이 강한 학술단체들<sup>8)</sup> 중심으로 연대하고 있었다.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상이한 시각이 존재했지만 이 협회에서

는 자유주의가 강력하게 옹호되었다. 1933년부터 1938년까지 이 회의 참가자들 중, 13명의 프랑스인과 10명의 벨기에인과 2명의 스위스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CIERL의 멤버이기도 했다(Denord 2002, 14).

1920년 설립된 국제상공회의소는 민간의 압력단체로서 그 본부를 파리에 두고 있었고, 기업조직들의 연맹이었다. 이 기관은 리프만 회의가 열린 1938년 51개 국가의 멤버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에 대한 로비자체가 국제상공회의소의 설립 목표는 아니었지만 이 조직의 엘리트 인맥과 활동은 국제적인 지형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지형에서 로비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신자유주의 국제네트워크의 형성에 있어서 국제상공회의소는 경영조직을 대표하는 경영자들과 대학의 전문가들의 정기적인 만남을 조직했다. 이 네트워크의 멤버였던 프랑스의 마를리오(Louis Marlio), 모네스티에르(Andre Monestier), 벨기에의 대학교수인 보두앵(Fernand Baudhuin), 폴란드인인 헤일페린(Michael Heilperin) 등 수많은 인물들은 CIERL의 멤버이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의 이론화와 이 이론의 주창자들의 모임은 특히 국제고등연구소(IUHEI) 같은 제네바의 저명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1927년 대학들과 자치단체들(cantons)과 제네바 시의 지원에 의해 설립되었고 국제문제의 법률, 경제, 역사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에 기여한 IUHEI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우선 국제연맹과의 지리적인 인접성이 중요했는데, 제네바에는 국제연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제적인 전문조직들이 다수 존재했고, IUHEI는 이 조직의 전문가들과 관계를 형성했다. 특히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IUHEI는 망명 중이었던 수많은 자유

---

7) 파리에서 간행된 <정치경제학 리뷰 (Revue d'economie politique), 리에주에서 간행된 <국제경제리뷰(Revue économique internationale)> 등.

8) 예를 들어 프랑스 벨기에 정치경제 학회(Societe d'economie politique de france et belgeique).

주의 지식인들을 받아들였다. 오스트리아의 법률 이론가였던 켈젠(Hans Kelsen)과 이탈리아의 역사학자 페레로(Guglielmo Ferrero) 등이 이 연구소에 관여했으며, 신자유주의의 생산과 확산에 기여한 인물로는 오스트리아의 미제스, 독일의 뢰프케, 폴란드의 헤일페린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IUHEI는 1930년대 중반에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수많은 학자들을 초청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의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일종의 허브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이예크는 1937년 이곳에서 임시 강의를 담당하기도 했고, 루지에르의 <경제의 신비(Les Mystiques économiques)>는 1937년에 IUHEI에서 개최된 일련의 학술회의 산물이었다.

### 3. 몽펠르랭 협회와 신자유주의의 국제화: 신자유주의 인식공동체의 국제적인 확대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존재한 각양각색의 자유주의 혁신 운동은 1947년 몽펠르랭 협회의 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통합과 실천에 나서게 된다. 1930년대 말에 신자유주의는 내부에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했지만 이들을 연결하는 주요 기관들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권력의 팽창과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그리고 신자유주의 독트린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전파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인 기관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자유주의 혁신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국제연구센터(CIERL)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했고, 새로운 신자유주의 국제조직이 구성되기까지는 종전을 기다려야만

했다. 전후 새로운 조직의 설립을 주도한 인물은 하이예크였다.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루지에는 영국과 비시장권 사이에 비밀협정이 존재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영국의 동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추락한 선지자의 운명을 맞이했다(Denord 2002, 13).

몽펠르랭협회의 창립회의는 1947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의 베베이(Vevey)에서 개최되었다. 미국과 스위스의 기금을 받아 하이예크가 조직한 이 모임은 <Road to Serfdom>이 출판된 1944년부터 시작된 노력의 결실이었다. 개인주의와 경쟁,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의 자생적 질서를 옹호하고, 전체주의와 나치즘을 향해 나아가 수박에 없는 사회주의와 계획주의를 반대하며, 합리주의에 기반한 서구의 문명의 위대함을 찬양하기도 한 이 책은(Hayek 2007) 출판되자마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이예크는 여러 학술회의를 방문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수많은 서신을 교환하면서 CIERL을 계승할 국제협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노력의 결과로 대다수가 대학교수들이었던 39명의 참가자들이 모일 수 있었다. 이 협회의 충원은 연령과 학문적 업적과 학계와 재계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이루어졌다. 몽펠르랭 협회는 그 후 급속하게 발전하여 1951년에는 21개국의 173명의 멤버가 참여했다.<sup>9)</sup>

서유럽과 미국에서 복지국가가 제도화되고 냉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몽펠르랭 협회는 지적인 문화들이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변화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사회주의에 적대적이었던 지식인들을 통합하고자 했다. 즉 이 협회는 경제적인 전문성을 넘어서 각 분야의 상징권력자들 간의 관계의 수립을 목표로 했다. 하이예크의 전략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유주의 엘리트

<sup>9)</sup> 몽펠르랭 협회의 역사, 조직, 활동에 관해서는 Mirowski and Plehwe (eds.) 2009를 참고.

의 통합을 추진하고 신자유주의에 유리한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조건들이 출현하기를 기다리면서 점진적으로 “열린 사회의 적”들을 포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과격한 정치노선이나 운동은 피해야 했다. 이로부터 경쟁질서의 미덕, 자유주의와 기독교주의 등 몽펠르랭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상황에 따라 자유주의자들의 관심들로부터 다소 멀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아롱(Raymond Aron)이나 포퍼(Karl Popper)처럼 그들의 모국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된 자유주의 지식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 혹은 비공식적 포럼으로서 협회를 운영하는 경향이 있었다. 몽펠르랭협회는 그 어떤 형태의 프로파간다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것을 금지했다. 협회의 멤버들은 그 어떤 “공식적인” 텍스트로도 연결되지 않았으며, 유일한 공식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문건은 협회의 첫 모임에서 채택된 “목표의 선언”이라는 제하의 결의문 정도였다. 그러나 이 결의문조차도 자유주의의 일반 원칙을 담은 매우 일반적인 목표들을 정의한 것이었다.

이 협회는 다른 국제포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멤버들만 보유하고 있었고,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한명의 회장, 한 명의 사무총장, 한명의 회계담당자, 하나의 이사회, 회원들) 풍부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회비도 그다지 많지 않았고 각각의 회의 때마다 모금을 해야 했다. 이 협회는 또한 상설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회의는 2년마다 서로 다른 나라들에서 개최되었다(Denord 2002, 15). 이는 노드 간의 유연한 접속과 수평적 관계, 그리고 권력의 탈중심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협회가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몽펠르랭 협회는 보수성향의 지식인들이 상호 인정을 교환하는 일종의 지적인 심급, 즉 멤버들의 정당성과 권위를 상호 높여주는 심급 기관으로 기능했다. 이 협회는 또한 정서적 공동체처럼 작동했다. 위계적인 조직이 아니었음에도 하이예크는

이 협회를 통해 지지자들로부터 확고한 권위를 획득했고, 기꺼이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추종자들을 이끌었다.

한편 협회에 접속된 다양한 신자유주의 네트워크들은 엄격한 분업을 실행했다. 몽펠르랭 협회는 소수의 멤버들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협회를 통해 인정을 받았고, 반대로 협회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거나, 기업과 미디어 혹은 국제기구에서 교육이나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혹은 국내에서 영향력 있는 조직의 설립을 통해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기여했다(Dezalay and Garth 2002, 136-143).

탈중심적이고 유연한 협회의 네트워크 구조는 이질적인 분파들의 통합에도 기여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협회의 몇몇 분파들은 한편으로 결사체(association) 형태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명성이 높지 않은 신참자들과 보다 광범위한 충원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것은 1960년대 중반 뤼에프(Jacques Rueff)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현재에도 활동 중인 프랑스 경제적 자유와 사회진보를 위한 협회(AREPS)의 사례에 해당된다. 이 협회는 대학의 경제학자들과 경영자 단체의 대표자들, 그리고 정치인들로 구성되었다. 또 다른 편에서 몽펠르랭 협회의 대다수 멤버들은 다양한 싱크탱크들의 설립에 직접 관여하거나 참가하고 있었다. 이 싱크탱크들은 정치인들과 미디어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법안과 논평과 분석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활동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정치적인 선전이었기 때문에 은밀함을 추구한 몽펠르랭 협회의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몽펠르랭 협회와 깊은 유대를 맺은 싱크탱크들 중 가장 유명한 곳은 1955년 영국에서 탄생한 경제문제 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였는데, 이 연구소는 마가렛 대처의 집권에 크게 기여했다(Cockett 1994).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싱크탱크로는 1973년 미국에서 설립된

해리티지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은 미국 공화당의 가장 보수적인 분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1970년대 장기불황과 경제위기로 인해 케인 지언 경제정책이 궁지에 몰리자 몽펠르랭 협회는 그동안 구축해 온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시작해 서유럽 전체에까지 신자유주의를 전파한 핵심 중개자가 되었다.

#### 4. 인식공동체 내부의 분파 간 경쟁과 신자유주의의 과격화

월터 리프만 회의 때부터 자유주의의 미래에 관한 상이한 시각들이 존재했지만 자유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고전적 방임주의를 표방한 영국의 맨체스터 학파를 제외하곤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부분적 역할을 인정하는 다양한 견해들의 통합이 달성될 수 있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던 갈등은 역설적이게도 몽펠르랭 협회가 성공을 거두던 시기에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 갈등은 멤버들의 개인적인 배경과 그들이 대표한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그리고 이론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1974년 하이예크와 1976년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노벨경제학상 수상, 1979년 대처정부와 1981년 레이건 정부의 출범,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글로벌 표준화로 인해 협회의 명예가 절정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 시기부터 협회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가지 요소들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몽펠르랭 설립자들의 개인적 배경에서 유래한 대립이고, 둘째는 협회원들이 대표한 각 국가 간 정치적 경제의 위계적 질서의 변화이다. 이로 인한 갈등은 신자유주의의 재정의로가

지 이어졌다. 몽펠랭 협회는 처음부터 상호 경쟁한 두 개의 프로젝트를 통합하면서 탄생했는데 그것은 하이예크의 계획과 뢰프케의 계획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이예크가 구상한 협회는 그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느슨하고 통합적인 조직이었다면, 뢰프케는 신자유주의의 사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활발한 토론을 선호했으며, 나아가 유럽과 미국의 지배엘리트를 겨냥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쟁점들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다. 뢰프케의 계획은 자금의 부족으로 실패하고 말았지만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둘러싸고 비밀주의와 공개주의 사이에서의 갈등이 몽펠랭의 역사 내내 지속되었다.

하이예크는 1899년 유럽의 문화적 수도였던 비엔나에서 출생했고, 뢰프케는 같은 해에 독일 하노버 근처의 슈바름스타트의 농촌에서 출생했다. 하이예크는 가족이 카톨릭 신자였지만 종교교육을 받지 않은 반면, 뢰프케는 독실한 프로테스탄트였다. 경력에 있어서 하이예크는 처음부터 대학 교수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스승이었던 미세스가 지휘했던 오스트리아 국방부 직할부대와 오스트리아 회계국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뢰프케는 꾸준히 대학인의 길을 걸었다. 1922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IENA의 교수였고(1924-1928), 그 후에는 오스트리아 그라츠(1928-1929)와 마르부르크(1929-1933)에서 교수를 지냈는데, 그 기간 동안 독일 정부 운영에 전문가로서 관여하였다. 하이예크는 비엔나를 자발적으로 떠나 런던 정경대학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나치즘에 대해 저항한 뢰프케는 1933년에 터키로 망명해야했고, 그 후에는 1937년 스위스에 거주했는데, 미국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하이예크는 1950년에 시카고 대학으로 떠났고, 196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유럽에 돌아왔는데, 이 기간 동안 정치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반면에 뢰프케는 서독정부의 존경받는 자문가였고, 자유주의 인터내셔

널의 영향력있는 멤버로서 제네바 국제고등연구소에 머물렀다.

이처럼 하이예크와 뢰프케는 사회적이고 지리적인 출신에서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성향에서도 달랐는데, 이러한 점들이 그들의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에도 영향을 미쳤다. 뢰프케는 국가주의에 직면한 기독교를 옹호한 반면에 하이예크는 유일교(monotheist)를 비판 용적이라고 간주하여 경계했다. 뢰프케가 자유로운 시장의 게임과 양립가능한 제한적 사회국가의 수용을 주장했다면, 하이예크는 사회적 정의를 내세우는 모든 논리들을 거부했다. 뢰프케가 공급이나 수요를 지탱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하도록 허용했다면 하이예크는 공공재의 운영과 법률적인 기능으로 한정된 국가의 역할만을 인정했다. 뢰프케가 산업집중과 도시의 팽창을 제한하는 반트러스트 입법을 통해 농촌 공동체와 가족 산업들을 보호하고자 했다면, 하이예크는 경쟁이 최선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확신을 유지하고 있었다. 뢰프케의 신자유주의는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질서자유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뢰프케와 하이예크로 대표되는 초창기의 균열은 몽펠르랭협회 내부에서도 발견된다. 이 균열들은 유럽의 경제학자 대 미국의 경제학자 간 대립, 국내의 학파 간 경쟁,<sup>10)</sup> 강경한 자유주의와 온건한 자유주의의 경쟁, 또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전문성의 경쟁(예를 들어 화폐의 민영화에 대항한 금본위제의 옹호 등)으로 표현되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몽펠르랭의 지적 상징이었던 하이예크와 협회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던 유럽인 사무총장 후놀트 사이에 벌어진 분쟁은 내부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결국 후놀트뿐만 아니라 뢰프케와 15명의 멤버들의 이탈을 겪은 후에야 봉합될 수 있었다. 당시 이탈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럽인이었다(Denord

<sup>10)</sup> 프랑스에서는 알래(Maurice Allais)같은 기술자-경제학자와 살랭(Pascal Salain)같이 오스트리아 전통을 주창하는 대학교수들이 대립했다.

2002, 16). 결국 유럽의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이탈로 인해 더 큰 분열은 피할 수 있었지만 1960년대의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과격화로 이어졌으며,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내부에서 미국분파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협회가 설립되던 당시, 지도부는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이 균등하게 대표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다시 독일인, 영국인, 프랑스인, 스위스인들로 균등하게 대표되어야 했다. 그러나 협회 내부에서는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 혹은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게임이 전개되었다. 결국 초창기에 다수를 점하던 유럽인 회원의 숫자는 1960년대부터 명확하게 줄어든 반면 미국인 회원수는 계속 증가했다. 이와 같은 구성원의 변화는 개인적이거나 지적인 대립뿐만 아니라 2차 세계 대전 후 국제정치경제의 세력변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다. 정치경제에서 미국의 패권이 공고해진 반면 유럽은 후퇴하고 있었다.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도 미국의 영향 하에 놓인 나라들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졌다. 이 시기 몽펠르랭협회는 회의의 조직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정치활동에 의해 라틴아메리카에 관여했는데,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먼은 피노체트의 칠레에서 “충격요법”을 실험하였고, 그 후 시카고학파의 경제적 처방은 영국과 미국에 수출되었다.

몽펠르랭 협회는 냉전시기에 탄생한 또 다른 국제네트워크와도 연결되어 있었는데, 특히 문화적 자유를 위한 회의(Congress for Cultural Freedom)는 많은 몽펠르랭 협회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Grémion 1995; Saunders 2013). CCF는 지식인의 중립성과 양심을 내세우며 결성된 국제지식인들의 주창네트워크였지만, 사실은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에 대항한 과격한 성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협회들은 미국의 정부기관들과 민간재단들, 프랑스경영자총연맹(CNPF)같은 경영자 조직들, 서독 경제부 등에 의해 재정을 충당했는데 이것은 인식공동체건

주창네트워크건 국제적인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증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었다. 몽펠랭 협회가 탄생하던 시기는 유럽의 경제가 빠르게 복원되고 복지국가가 정착되던 시기였다. 에어하르트(Ludwig Erhard), 오이켄(Walter Eucken), 뮐러-아르마크(Alfred Müller-Armack), 루스토우(Alexandre Rüstow), 뢰프케 등은 몽펠랭의 첫 멤버들이었고, 이들의 지휘 하에 서독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모델을 형성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으로부터 미국을 향한 신자유주의 구심력의 이동은 “사회적 자유주의”의 후퇴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에서 논의되는 전문가의 네트워크로서 인식공동체 개념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건설적 연구를 위한 제안을 정리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례연구에 적용하고자 했다. 이하에서는 더 나은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함으로써 글을 마감하고자 한다. 앞에서 지적한 인식공동체 개념의 문제점은 사실, 이 개념이 기반하고 있는 네트워크 개념으로부터 파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네트워크 유형의 행위자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도 강해지고 있다. 특히 아이디어의 국제적 순환과 관련한 네트워크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수행되어 왔다. 그중 한 가지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학문 공동체 혹은 정책 공동체로서 인식공동체에 대한 분석이며 또 다른 연구는 특정한 믿음과 신념

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각종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새로운 규범들을 만들어가는 주창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이었다(Sikkink 1993).<sup>11)</sup>

네트워크 개념은 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교환이나 커뮤니케이션의 경로를 사회구조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구조중심의 환원론이나 행위자 중심의 환원론을 모두 지양하고, 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현상적인 관계들을 밝혀내는 데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이 방법은 수평적인 정부 간 교류의 관점에서부터 수직적인 초국가적 정책기구에 이르기까지 정책결정이나 지식의 순환에 개입하는 공식적 혹은 잠재적인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잠재적인 영역이란 제도나 조직으로 표현되는 “강한”관계뿐만 아니라 개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약한” 관계까지 포괄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전문가 네트워크의 형성과 작동에 있어서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를 포괄한 관찰을 수행했다.

네트워크 분석의 또 다른 장점은 사회 변동에 대한 기능주의적 해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네트워크 분석은 거시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에 기능적으로 적응하려는 제도와 조직, 개인의 행태에 주목하기 보다는 새로운 행동의 규칙과 규범을 생산하고 표준화함으로써 기존의 국제구조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들에 주목할 수 있게 해준다. 리프만 컨퍼런스와 몽펠르랭협회의 형성과 활동은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자유주의를 혁신함으로써 전후의 시대상황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전문성을 새로운 경제적 표준으로 정립하려한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네트워크 분석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방법은

---

11)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네트워크 분석에 입각한 연구들의 보다 포괄적인 설명으로는 김상배, 2008을 참고.

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수평적인 교환이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질적이고 불균등한 자원을 보유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를 규정하는 외부의 힘들을 경시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네트워크 분석이 세밀한 서술이라는 장점을 얻는 대신 이론적 성찰의 빈곤을 노출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게 한다.

네트워크 개념에 기반한 국제정치 연구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인식공동체, 주창네트워크 등의 범주의 설정이 지나치게 인위적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인식공동체)와 사회운동가들의 네트워크(주창네트워크)는 상호간에 빈번하게 접촉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두 네트워크의 통합적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김성현 2010, 177-178). 이 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은 지식인인 동시에 신념을 전파하는 운동가이기도 했다. 특히 네트워크 간 접촉을 주도하는 노드의 지위를 점유한 행위자들은 복합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들은 학자인 동시에, 정부의 인사이며, 공익재단이나 싱크탱크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종 사회운동을 대표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접촉을 통해 확보되는 관계들이 특정 공동체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몽펠르랭 구성원들의 정부, 재계, 정치계에 대한 연계, 그리고 문화적 자유를 위한 협회 같은 또 다른 지식 네트워크와의 접촉은 신자유주의 전문성의 국제적 전파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일군의 학자들은 인식공동체나 주창네트워크 연구가 보다 한정된 네트워크를 넘어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분석을 반영할 때 더욱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Yashar 2002).

끝으로 네트워크 분석의 피상성과 서술 중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완결된 이론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과학이론과 결합한 서술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는 건설적인 제안이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정책학자 아센퇴펠(Hassenteufel 1995)은 공공정책 네트워크 분석이 국가론과의 접목을 통해 과도한 서술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권력관계를 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제안을 따르면 사회적 계급 분파들이 국가와 맺고 있는 네트워크라든가(Poulanzas, 1980), 헤게모니 혹은 대항 헤게모니 블록의 한 축을 점유한 지식인들이 국가, 정당, 자본, 노동 등과 형성한 네트워크의 분석 등이<sup>12)</sup>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자본주의 구조 중심적 편향성을 피하고 싶다면, 그리고 보다 행위자 중심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싶다면 부르디외의 장(champ)과 상징권력(pouvoir symbolique)의 개념이 각각 고유한 구조를 가진 장들을 가로지르는 전문가의 네트워크로서 인식공동체를 조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연구로서 이브 드잘레이와 브라이언트 가스(Dezalay, Garth 1998; 2002)는 부르디외의 성찰사회학에 바탕을 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특수한 전문성과 규범을 생산하고 국제적인 지형에서 표준으로 가공하며 각국에 전파하는 행위자들을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적 실천의 영역으로서 고유한 규칙을 가진 장(즉 각각의 장은 하나의 사회구조를 형성한다)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 집단과 열세에 놓인 집단이 장의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재정의하고 자신이 보유한 자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인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장의 행위자들과 전략적인 동맹을 맺고 이러한 동맹관계를 통해 다른 장의 전략적 자본들을 자신의 장에 도입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전략적 자본들을 다른 장에 빌려 줌

---

<sup>12)</sup> 네오 그람시언을 대표하는 국제정치학의 저술로는 Cox 1983, 1987, Gill 1993을 참고.

로써 비주류를 계속 열세로 내몰거나 주류를 전복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인다. 본 연구에서 열세에 처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다른 장(경제권력의 장, 정치권력의 장 등)의 행위자들과의 동맹을 통해 자신들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식공동체 개념은 부르디외의 사회학과 결합함으로써 각각의 장을 넘나드는 지식인의 실천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또 하나의 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2022년 10월 05일 접수, 11월 13일 심사완료, 11월 21일 게재확정)

---

<sup>13)</sup> 부르디외 사회이론과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는 김성현 2017을 참고.

참고문헌

- 김상배. 2008.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가지 가정을 넘어서.” 『국제정치논총』. 48(4). pp.35-61
- 김성현. 2010. “국제투기자본과 시민사회: 조지 소로스와 열린사회 연구소를 중심으로 본 정책지식의 확산과 국제시민운동.” 『시민사회와 NGO』. 8(2). pp.169-192.
- 김성현. 2017. “피에르부르디외: 법률의 장과 권력의 해부.” 한국법사회학회(편). 『현대법사회학의 흐름』. 서울: 세창출판사.
- Adler, Emanuel and Pouliot, Vincent. 2011. *International Practi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dler, Emanuel. 1987. *The Power of Ideology: The Quest for Technological Autonomy in Argentina and Brazil*.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dler, Emanuel. 1992. “The emergence of cooperation: national epistemic communities and the international evolution of the idea of nuclear arms control.”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pp. 101-145.
- Adler, Emanuel. 1992. “The Emergence of Cooperation: National Epistemic Communities and the International Evolution of the Idea of Nuclear Arms Control.”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pp. 101-45.
- Adler, Emanuel. 2008. “The Spread of Security Communities: Communities of Practice, Self-Restraint, and NATO’s Post-Cold War Transformation.” *European Journal of*

- International Relations*. 14(2). pp. 195-230.
- Adler, Emanuel. 2009. "Europe as a Civilizational Community of Practice." in Peter Katzenstein (ed.). *Civilizations in World Politics: Plural and Pluralist Perspectiv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pp. 67-90.
- Audier, Serge et Reinhoudt, Jurgen. 2008. *Le Colloque Lippmann. Aux origines du néo-libéralisme*. Latresne: Éditions Le Bord de l'Eau.
- Bourdieu, Pierre. 1980. "Le capital social. Notes provisoires."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31. janvier 1980. pp.2-3
- Charle, Christophe. 1994. "Ambassadeurs ou chercheurs ?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s professeurs de la Sorbonne sous la IIIe République." *Genèses*. 14. janvier 1994, pp. 42-62.
- Cockett, Richard. 1994. *Thinking the Unthinkable. Think Tanks and the Economic Counter-Revolution (1931-1983)*. New York: HarperCollins.
- Cox, Robert. 1983. "Gramsci, Hegemon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 Essay in Method." *Millennium*. 12(2). pp. 49-66.
- Cox, Robert. 1987. *Production, Power and World Order: Social Forces in the Making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ard, Olivier et Coutrot, Jean. 1999. *De l'ingénieur au prophète*. Besançon: Presses universitaires franc-comtoises.
- Denord, Francois. 2001. "Aux origines du néo-libéralisme en

- France. Louis Rougier et le Colloque Walter Lippmann de 1938.” *Le Mouvement social*. 195. avril-juin 2001. pp. 9-34.
- Denord, Francois. 2002. “Le prophète, le pèlerin et le missionnaire: La circulation internationale du néo-libéralisme et ses acteurs.”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45. pp. 9-20.
- Dezalay, Yves et Garth, Bryant G. 2002. *La Mondialisation des guerres de palais*. Paris: Le Seuil. coll. « Liber ».
- Drake, William and Nicolaïdis, Kalypso. 1992. “Ideas, interests, and institutionalization: “trade in services” and the Uruguay Rou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pp. 37-100.
- Dunlop, Clair. 2000. “Epistemic Communities: A Reply to Toke.” *Politics*. 20(3). pp. 137-144.
- Ebenstein, Alan. 2001. *Friedrich von Hayek, A biography*. New York: Palgrave.
- Fleck, Ludwik. 1981. *Genesis and Development of a Scientific Fac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ly published in German in 1935).
- Foucault, Michel. 1973. *The Order of Things*. New York: Vintage Books.
- Friedman, Milton. 2020.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eroge, Susan. 1996. “Comment la pensée devient unique.” *Le Monde Diplomatique*. Août. pp. 16-17.
- Gill, Stephan. 1993. *Gramsci, Historical Materi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ugh, Clair and Shackley, Simon. 2001. "The respectable politics of climate change: the epistemic communities and NGOs." *International Affairs*. 77(2). pp. 329-345.
- Grémion, Pierre. 1995. *Intelligence de l'anticommunisme. Le Congrès pour la liberté de la culture à Paris 1950-1975*. Paris: Fayard.
- Haas, Ernst, Williams, Mary, and Babai, Don. 1977. *Scientists and World Order: The Uses of Technical Knowledg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as, Peter. 1989. "Do Regimes Matter? Epistemic Communities and Mediterranean Pollution Control." *International Organization*. 43(3). pp. 377-403.
- Haas, Peter. 1990. *Saving the Mediterrane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as, Peter. 1992. "Banning Chlorofluorocarbons: epistemic community efforts to protect stratospheric oz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pp. 187-224.
- Haas, Peter. 1992. "Banning chlorofluorocarbons: epistemic community efforts to protect stratospheric oz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pp. 187-224.
- Haas, Peter. 1992.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pp. 1-35.
- Hayek F. A. *The Road to Serfdom: Text and Documen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The Definitive

Edition)

- Hayek, F. A. 2002(1949). “Les intellectuels et le socialisme.” *Commentaire*. 99. automne. pp. 673-683.
- Holzner, Burkhard. 1972. *Reality Construction in Society*. Cambridge, Mass: Schenkman.
- Ikenberry, John. 1992. “A world economy restored: consensus and the Anglo-American postwar settl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pp. 289-321.
- Kapstein, Ethan Barnaby. 1992. “Between power and purpose: central bankers and the politics of regulatory converge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pp. 265-287.
- Karl R.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0.
- Krebs, Ronald R. 2001. “The Limits of Alliance: Conflict, Cooperation, and Collective Identity.” in Anthony Lake and David Ochmanek (eds). *The Real and the Ideal*.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p. 207-235.
- Kuhn, Thoma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rowski, Philip and Plehwe, Dieter (eds.). 2009. *The Road from Mont Pèlerin: The Making of the Neoliberal Thought Collective*.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M.J. 1992. “Whalers, cetologists, environmentalists, and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of whal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pp. 147-186.

- Pouliot, Vincent. 2008. "The Logic of Practicality: A Theory of Practice of Security Communit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2(2). pp. 257-288.
- Poulantzas, Nicos. 1980. *Pouvoir politique et classes sociales*. Maspero.
- Rougier, Lois. 1938. *Les Mystiques économiques*. Paris: Éditions de la Librairie de Médecis.
- Ruggie, John Gerard. 1975. "International Responses to Technology: Concepts and Tren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29(3). pp. 569-570.
- Saunders, Frances Stonor. 2013. *The Cultural Cold War: The CIA and the World of Arts and Letters*. The New Press (Second edition).
- Sebenius, James K. 1992. "Challenging Conventional Explana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Negotiation Analysis and the Case of Epistemic Communit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pp. 323-365.
- Sikkink, Kathryn. 1993. "The Power of Principled Ideas: Human rights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in Judith Goldstein and Robert O. Keohane (eds.) *Ideas and Foreign Policy: Beliefs, Institutions, and Political chang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39-170.
- Toke, David. 1999. "Epistemic Communities and Environmental Groups." *Politics*. 19(2). pp. 97-102.
- Verdun, Amy. 1999. "The role of the Delors Committee in the

- creation of EMU: an epistemic community?"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6(2). pp. 308-328.
- Weaver, Richard. 2013. *Ideas Have Consequenc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nlarged edition).
- Yashar, Deborah J. 2002. "Globalization and Collective Action." *Comparative Politics* 34(3). pp. 355-375
- Youde, Jeremy. 2005. "The Development of a Counter-Epistemic Community: AIDS, South Africa, and International Regimes." *International Relations*. 19(4). pp. 421-439.
- Zito, Anthony. 2001. "Epistemic communities, collective entrepreneurship and European integration."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8(4). pp. 585-603.

Global Networks and Neoliberalism: Reconsideration of  
Epistemic Community for Case Study.

*Seong-Hyun Kim\**

Many expert groups influence on public policies and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global standards with their own scientific authority or political and moral beliefs. International studies relied on the concept of epistemic community to refer to these groups. However, the concept of epistemic community does not seem to provide meaningful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studies. In this article, we will reexamine this concept and try to propose some improvement plans. In addition, based on new perspectives, we will analyse and describe an history of neoliberalism, the genesis of their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tworks, and their competition for the intellectual and political authority. Faced with a crisis due to totalitarianism, World War II, and Keynesian economics, liberals around the

---

\* Lecturer in Soongsil University

world formed new groups and organizations not only in their home countries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y tried to innovate liberal traditions. Looking into their experiences and activities will allow u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various neoliberal thoughts, the competition among intellectual and professional factions, and the international paths through which neoliberal ideas circulates.

**Key words:** epistemic community, neoliberalism, ordoliberalism, mont-pelerin society, Walter Lippman Conference.

